

기아차 '명품 살충사' 지역경제 이끈다 최첨단 신기술 결정체 '그랜버드'

광주공장 버팀목 된 '대형버스 최강자'



광주시 서구 내방동 700번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정문을 지나면 오른쪽에 본관 건물이 있다. 옆길 보면 박스형 건물 같지만 유심히 보면 대형버스 모형을 하고 있다. 이 건물은 기아차 광주공장의 전신인 아시아자동차 시절인 1979년 11월에 지어졌다. 이 건물이 현상화 하듯이 아시아자동차의 상징은 대형버스였다. 당시 최첨단 건축 공법을 이용해 이를 현상화한 것이다.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차종 중 아시아자동차 시절부터 현재까지 존속해 내려오는 차종은 대형버신 '그랜버드'가 대표적이다. <기아 최장수 차종=대형버스는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가장 오랫동안 생산하고 있는 최장수 차종이다. 대형버스 브랜드 '그랜버드'는 1994년 첫 시판한 이래 국내 대형버스 시장을 이끌어왔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동안 국내 대형버스 시장의 40% 이상 점유율을 기록했다. 당시 그랜버드를 사기 위해서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할 정도였다. <버스타도 이젠 럭셔리=기아차는 지난달 그랜버드를 한층 고급스러운 외관과 내부 디자인을 적용하고, 최첨단 신기술 신사양을 대거 장착해 '그랜버드 이노베이션'을 내놨다.



'그랜버드 이노베이션'은 기아차 광주3공장 하남버스타특수공장에서 1시간에 1대 꼴로 생산된다. <기아차 제공>

16년 존속 최장수...신모델로 인기 가세 대형승용차 수준의 품격·편안함으로 승부

그랜버드 이노베이션은 2007년 12월 뉴그랜버드 출시 이후 2년8개월 만에 선보이는 신모델이다. 먼저 차별화된 외관이 눈에 들어온다. 하이데크 모델인 실크로드와 썬샤인 모델의 외관에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실내공간 중 운전석 주변부는 중대형 승용차 수준의 고급스럽고 품격 있는 스타일로 변화했다. 승객석 부분은 화려함이 돋보이는 LED조명과 고급스러운 실내 컬러를 통해 쾌적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구현했다. 한마디로 럭셔리해졌다.

그랜버드 이노베이션에는 최첨단 신기술과 신사양도 대거 적용됐다. 현대기아차가 독자 개발해 성능·연비·내구성을 인정받은 12L 급 파워텍 엔진과 10L 급 H엔진이 탑재해 출력(최고출력 425마력)을 높였으며, 전자식 가변 터보차저(VGT), ZF 6단 변속기, 최적의 리어 액슬 기어비 등을 적용해 연비를 개선했다. 또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유로-5 수준의 국내 배기가스 규제를 충족 시켰고, 입체·공간감을 살린 홀로 그램 클러스터 계기판, 바이오케어

온열 운전석 시트, 예코 드라이빙 시스템 등 첨단 사양을 대거 장착했다. 가격은 파워텍 425마력 기준으로 1억3000만~1억7155만원이다. <하남산단에도 기아차 공장 있다=그랜버드 이노베이션은 광주3공장에서 만든다. 라인은 본 공장이 있는 서구 내방동이 아닌 하남산단 내 3공장 소속 하남버스타특수공장에 있다. 이곳에선 그랜버드와 군수차만 생산한다. 기아차는 그랜버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06년 2월부터 22개월 동안 하남공장 11만8800㎡의 부지에 총 290여억원을 투자해 버스·군수 공장 합리화 사업을 추진했다. 대형버스 특성상 한시간에 한대 꼴로 생산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생산 '쏘울 플렉스' 브라질 공략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전락 생산되는 '쏘울 플렉스(Soul Flex)'가 '2010 상파울루 국제모터쇼'에서 첫 선을 보이고, 본격적인 브라질 시장 공략에 나섰다. 기아차는 26일(현지시간) 상파울루 아얌비 국제전시장에서 열린 상파

울루 모터쇼에서 에탄올과 가솔린을 혼합한 연료 또는 100% 에탄올, 100% 가솔린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플렉스 자동차(FFV) '쏘울 플렉스'를 선보이고 본격 시판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내 자동차 업체가 플렉스 차량을

개발, 시장에 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아차는 "쏘울 플렉스가 쏘울 특유의 박스형 스타일의 개성 있는 디자인과 함께 기존 가솔린 차량 대비 3.2% 우세한 최대출력 128마력, 3.7% 우세한 최대토크 16.5kg.m의 뛰어난 동력성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기아차는 이 차의 개발을 위해 연료 분사 장치 및 촉매를 변경하고, 연료 인젝션 비용을 높였다. 또 에탄올 연

료의 점착 부품인 연료 펌프, 필터캡, 연료 라인 등의 부식 및 마모성을 대폭 강화하고, 저온 날씨에도 시동이 잘 걸릴 수 있도록 엔진 룸에 별도의 보조가솔린 연료탱크를 설치했다. 기아차는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현지 판매를 시작해 연간 1만5000대를 판매할 계획이며, 내년 말에는 스포티지R 플렉스를 출시하는 등 부분별로 플렉스 차량 라인업을 강화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북구 대형마트 건축주 법원에 강제신청

"허가서 반력로 착공 지연" 손해 청구도 고려

행정소송에서는 승소했으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대형마트 건축주가 법원에 강제 신청을 냈다. 27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 매곡동에 대형마트 건축을 추진중인 개발업체 S법인이 최근 행정소송에서 건축허가 판결이 확정됐지만 북구가 허가신청을 반려해 지난 20일 광주지법에 건축허가를 내달라며 간접강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간접강제는 '법원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목적으로, 법원이 건축허가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허가를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

는 없어 대형마트 건축주는 금전적인 부담을 뒤 북구가 건축허가를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북구는 고문변호사를 선임하고 다음달 1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답변서를 작성 중이며 강제신청 심문절차에 대한 대응준비를 하고 있다. 답변서에는 주변 상인과 학교·학부 등 반대입장에 따른 최선의 행정조치였음을 강조하는 내용들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S법인은 북구의 건축허가 불허가 및 신청서 반려로 공사 착공이 지연됐다며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는 지난 18일 매곡동 대형마트 건축 문제와 관련, 주변 상인대책위원회 및 인근 학교와 협의를 한 뒤 합의서를 첨부해 다시 건축허가 신청을 하라며 부동산개발법인 S법인이 제출한 건축허가서를 반려했다. 하지만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 건축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S법인은 북구 삼각동 고려고 인근 8969㎡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4층, 총면적 2만4천여㎡ 규모의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불허 처분이 내려지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승소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유통계 창립·개점 대규모 경품 경쟁

유통업체가 창립·개점을 기념해 대규모 경품행사를 연다. 27일 유통업체에 따르면 광주신세계백화점은 본점 개점 80주년을 맞아 '신세계 패밀리와 함께하는 행복대축제'를 연다. 28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백화점과 이마트에서 구매한 회원층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등 당첨자 8명에게는 500만원 신세계 기프트카드를, 2등 17명에게는 기프트카드 10만원권, 3등 80명에게는 기프트카드 10만원권 등을 증정한다. 현대백화점 광주점도 백화점 창사 39주년 축하 경품행사를 연다. 다음달 21일까지 방문고객 중 1등 당첨자 2명에게 G20 정상회의 의전차량인 '에쿠스 리무진 VL500 프리스티지'와 일등석 항공권, 호텔 숙박

권(20박), 여행 전문 컨시어지 동반으로 구성된 하나투어 세계일주 패키지(1생), 앤디 위홀 작품 '문 익스플로러(Moon Explorer)', 백화점 상품권 1억원 가운뎃 하나를 고를 수 있다. 2등 당첨자 18명에게는 아이패드 2가 주어진다. 롯데마트는 롯데쇼핑 창사 31주년을 기념해 28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문 한 달' 행사를 열고 롯데마트 사 상품 최대 규모의 경품행사를 벌인다. 에쿠스, 아반떼 하이브리드, 엑센트, 포터, 스타러스 등 현대차 차량 16종을 1대씩 경품으로 내걸었다. 또 추첨을 통해 1000명에게 롯데상품권 5만원씩, 4984명에게는 두 사람이 쓸 수 있는 영화예매권 1장씩을 증정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국내 136만 9000명 스마트폰 बैं킹 이용

스마트폰을 이용해 계좌 조회와 자금 이체 등 은행 거래를 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9월 말 현재 국내 은행에 등록된 스마트폰 बैं킹 고객은 3개월 전보다 153.5% 증가한 136만9000명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27일 밝혔다. 스마트폰 बैं킹 고객은 작년 말 1만3000명에서 지난 3월 말 9만3000명, 6월 말 54만명 등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 이에 힘입어 모바일 बैं킹 등록 고객은 1432만명으로 3개월 사이에 114만명 증가했다. 3분기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은행 거래 건수(이하 건수)와 이용금액은 일평균 건수는 105만건, 이용금액은 483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각각 368.6%, 297.5% 급증했다. 모바일 बैं킹을 포함한 인터넷 बैं킹 등록 고객은 6390만명으로 6월 말보다 56만명 증가했다. 3분기 인터넷 बैं킹 이용 건수는 3401만건으로 전 분기보다 3.3% 증가한 반면 이용금액은 28조 5389억원으로 4.7% 감소했다. /연합뉴스

광주 업체 증가율 전국 상위권

광주지역 업체체수와 종사자수 증가율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말 기준 전국사업체조사(종사자 1명 이상)에 따르면 광주는 사업체 수 9만 9317개, 종사자 수 49만1975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1.9%(1806개), 6.0%(2만7871명) 늘었다. 증가율로 보면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치다. 16개 시도 중에서는 종사자수 증가율이 전북(6.9%)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으며, 사업체수 증가율도 제주(4.0%), 전북(2.5%)에 이어 세번째다.

전남의 경우 사업체수가 12만4903개로 전년보다 617곳(0.5%)이 증가했으며, 종사자수도 56만4037명으로 같은 기간 2만8785명(5.4%)이 늘었다. 전국적으로는 사업체의 경우 3.0%, 종사자수는 2.9%를 차지했다. 산업별 사업체 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이 모두 5.3%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3.6%),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3.2%) 등이 뒤를 이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2010 Korean 菊香大展 Grand Chrysanthemum Festival. 2010 대한민국의 향향 대전. 2010. 10. 29 ~ 11. 14 일 17일간. 함평엑스포공원(전남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1153-1). 주최 함평군 주관 함평군축제추진위원회 문의 함평군청 문화관광체육과 061)320-3364 홈페이지 www.hampyeong.jeonnam.kr www.inabishop.com